

투데이 칼럼

북한 돈주들의 몰락

북한에도 호캠프에서 커피를 즐기고, 수입 화장품을 애용하고,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돈주'라고 불린다. 이른바 북한의 신혼 부자인 셈이다. 이들은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시장화를 통해 큰 부를 축적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호화 생활을 한다. 이들은 다양한 식당에서 외식을 즐기기도 한다. 피자, 스파게티 등의 서구식 요리는 물론 칠관 요리나 초밥과 같이 색다른 메뉴도 다양하게 즐긴다. 각종 문화·유희 시설을 즐길 수 있는 건 대부분 '돈주'들이다. 돈주들은 1990년대 중 후반 배급 체계가 붕괴된 북한 시장에서 장사와 고래대금업, 밀수 등으로 돈을 벌었다. 그러면서 대형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고 외국산 전자제품과 사치품 등의 소비를 즐길 정도로 자본력을 갖추고 있다. 예전에 장마당 중심 영역에서 대규모 거래를 통한 대방(무역업) 형식으로 성장하면서 사업 자본 규모도 커졌다. 막대한 자본력으로 북한 사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그런데 최근 이들의 위상이 변화가 생겼다. 돈주들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돈주의 약



정복규
논설위원

70~80%가 몰락했다고 전해진다. 이는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장사할 물건이 부족해진 데다, 북한 당국의 시장 통제와 관리 강화로 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유통으로 돈을 벌어들인 돈주들이 대부분 사업을 접었다.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지난 3년 간 국경을 봉쇄하면서 원자재와 식량은 물론 각종 생필품 등의 수입이 급감한 것이 큰 이유다. 한국에 있는 탈북민과 최근 소식이 닿은 돈주 역시 막막한 심정을 전했다. 그런데 이들의 숨통을 죄는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북한 당국의 통제와 관리다. 북한은 2021년 제8차 당 대회 이후 시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영역을

국가가 통제하면서, 비교적 자율적으로 운영되었던 시장에 적극적으로 운영됐던 시장이 적국에 개입했다.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19 시기 본격화된 양곡 판매소 운영이다. 과거 돈주들이 중국산 쌀과 옥수수 등을 매점매석해 식량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런데 당국이 나서서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양곡 판매소를 국가가 직접 운영해 시장보다 저렴한 가격에 식량을 판매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일반 상인들과 돈주들이 장마당에서 식량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문제는 국가 주도의 양곡 판매소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북한 내 생산되는 식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다. 수입 물량도 여전히 부족해 한 달에 일주일 정도만 판매하는 실정이다. 공장이나 기업소 등에

노동자로 등록되지 않은 주민들은 식량을 살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 식량 분배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북한 당국은 시장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먼저 북한 사회에서 시장화가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국가 통제를 벗어나 커지고 있는 사적 재산을 억제하고 돈주들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한편으로는 개인 경제활동이 커지는데 따른 주민 사상 이완과 변질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은 코로나19 시기 시장 통제와 함께 '반동사상문화매거브',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주민들의 일상을 통제하는 법안들을 제정했다. 지난 8월, 북한은 3년 7개월 동안 단았던 국경의 일부를 공식 개방했다. 하지만 몰자 이동이나 인적 왕래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돈주들이 자체적인 힘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는 그만큼 적다는 의미다. 결국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동력을 만들기 쉽지 않다. 돈주들은 한때 그들의 자금 흐름이 북한 경제의 흐름이라 불릴 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다. 그러나 이들의 몰락이 북한 사회에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설

2024년 갑진년 새해 소망

2024년은 갑진년(甲辰年)으로 푸른색을 의미하는 '갑'과 용을 의미하는 '진'이 만나는 청룡의 해이다. 용의 해는 1952년-2012년 임진년, 1964년-2024년 갑진년, 1976년-병진년, 1988년-무진년, 2000년-경진년 등이다. 갑진년(甲辰年) 새해 소망 가운데 절실한 것은 인구 증가 문제다. 한국은 평균 출생률 0.7명으로 전 세계 꼴찌다. 세계 평균치 1.5명에 비교해 너무 낮다. 2040년에 인구 5,000만이 깨지고 50년 후인 2072년엔 인구 3,600만으로 예측된다. 결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 여성은 불과 28%, 남자는 42%다. 결혼하더라도 자녀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사람이 무려 44%나 된다. 40세 미만 2,100만, 41% 가운데 19세 미만은 15.0%에 불과하다. 주말에 전철을 타보면 거의 절반이 경로 무임승차 승객이

다. 1990년대 연간 40만 쌍이던 신혼부부가 20만이 됐다가 그마저 못 버티고 올해 19만으로 내려갔다. 한해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 수도 30만 명이 무너져 29만이 되었다. 징집 자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 있다는 얘기다. 지방 소멸, 폐교 사태, 유행 폐가 등이 갈수록 심각하다. 정관 수술한다면 예비군 훈련을 일정 기간 면제받던 시절이 불과 한 세대 전이다. 자녀 출산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법정부적 초당적 혐의체를 만들어 인구정책에 최우선 방점을 뒤야 할 때다. 인구 증진을 최우선 국가 과제로 삼고,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새해 갑진년에는 국가 소멸 예방책, 그리고 실효성 있는 인구 증진 종합 정책이 나오길 간절히 기원한다.

한국 수출 전망

한국 수출 전망이 다소 희망적이다. 1년째 수출을 짓누르던 반도체 부진을 메워준 건 자동차 수출이다. 자동차가 끌고 반도체가 그동안 부진을 풀이면서 4분기 한국 경제 첫 성장표인 10월 수출이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지난 10월 수출액은 550억 9000만 달러로 1년 새 5.1% 늘었다. 무역수지(16억4000만 달러)는 5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그동안 수출은 중국 경기 충격 여파 등에 12개월 연속 줄며 긴 부진의 터널에 갇혀 있었다. 10월 수출은 3분기 성장 '일등공신'이었던 수출이 계속 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잣대였다. 3분기 성장률(0.6%) 중 순수출 기여도는 0.4%포인트로 대부분 성장 에너지가 수출에서 나왔다. 올해 '상저하고(상반기 저조, 하반기 호전)' 경기 전망

을 판가름할 4분기 국내총생산(GDP) 역시 수출 회복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미국(17.3%), 아세안(14.3%), 중동(8.7%) 등 9대 주력 수출 지역 중 6곳에서 수출이 늘었다. 10월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선박 수출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수출 증가는 11월, 12월은 물론이고 내년 초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세계 교역 환경은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다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고질적 엔저, 중국 경기 리스크는 반등한 수출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최근 세계은행은 중동발 전쟁이 대규모로 확산되면 세계 석유 공급량이 하루 600만~800만 배럴 줄면서 유가가 배럴당 140~157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역대급 엔저도 변수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뉴욕 '굿 리던스 데이' 나쁜 일들 태워 없애는 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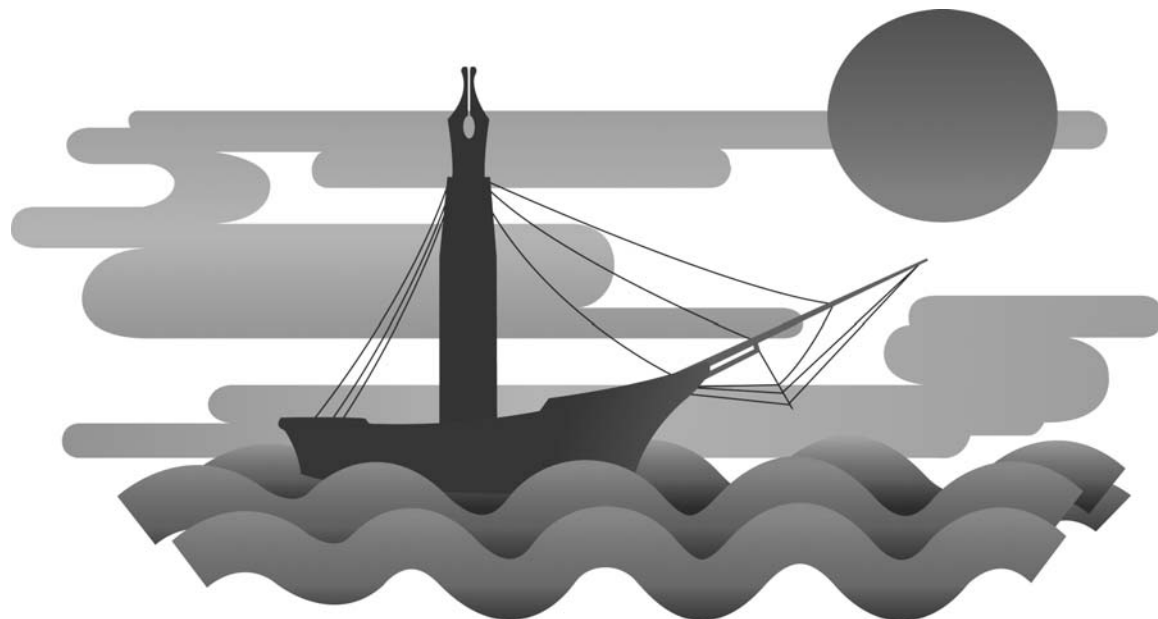
미술사 데본데 로세로가 제17회 '굿 리던스 데이'(Good Riddance Day)인 지난해 12월 2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시민들이 쓴 메모지들을 불태우고 있다. '굿 리던스 데이'는 일종의 '액뎀의 날'로 비영리단체 '타임스퀘어 열라이언스'가 나쁜 기억을 종이에 적어 문서 세절기에 넣거나 불에 태워 한 해 동안의 나쁜 일을 잊고 험한 새해를 맞자는 취지로 시작해 매년 12월 28일에 열린다.

대만 총통 선거, 선전 기원하는 허우유이 후보



대만 제10당 국민당의 허우유이(오른쪽 두 번째)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29일(현지시각) 타이베이에서 선거 운동을 하면서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오는 1월 13일 열리는 총통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은 지난해 12월 28일 저녁 마지막 TV 정견 발표회(토론회)를 거쳤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